



대학생의 성적(性的) 자율성에 관한 연구

장 순 복¹⁾ · 이 미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성(性) 관련 사회현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서구문명의 도입과 다양한 매스컴의 발달로 인한 대중매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의 범람 속에서 대중들은 성에 대한 행동기준을 갖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처해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욕구가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 심리적,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사회적 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성행동의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성적(性的) 자율성이란 성적으로 성숙되는 대학생이 획득해야 할 필수적인 개념이며 행동능력을 대표하는 어휘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나 성적(性的) 자유와의 혼돈 속에 그 의미조차 제대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 차원의 성적 자유란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하고, 재 정의 하며, 자유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나 부여되는 것이 아닌 내부로부터 누리는 것이므로, 자신의 욕체를 소유하거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02; Huh, 1995). 즉,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 결과로 임신이 되어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인공유산술을 할 것인지,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은 철저히 할 것인지를 의식적·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자유의 관점이 물질과 신체에 치우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성 관련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주도적 의지와 행동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자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Chang, 2000). 이와 같이 성적으로 자유로우려면 성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성적 자율성을 누릴 때 그들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며, 성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만이 진정한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가를 가름하는 기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성이 얼마나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다(Chang, 2000).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위주의 생활 속에서 적절한 사춘기적 성장발달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의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대학생화를 하게된다. 더욱이 가정을 비롯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년기에 진입한 대학생은 대학입시 이후에 주어지는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이성교제 과정을 통하여 인간관계 관점의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성유희적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적 혼돈을 경험하고 있으며(Kim, 1999; Lee 등, 1997), 스스로 성에 대한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게 되므로 자신의 욕구와 이성적 통제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에서 수많은 성문제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억압받고 있다(Nam, 1999; Chang 등, 1998; Lim, Kim, Jang, Kim과 Kim, 1994).

주요어 : 성적(性的) 자율성, 대학생

1) 연세대학교 모성간호학 교실 교수,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 2) 단국대학교 시간강사

투고일: 2002년 7월 1일 심사완료일: 2003년 2월 28일

사실상 성행동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로서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행동이다. 성교가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볼 때,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교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원하는 상태에서 성교한 경우일지라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후회스러웠다(Han과 Ham, 2000; Lim 등, 1994)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1)에 따르면 임신중절 받은 여성 중에 미혼이 1/3을 차지하며 이 중 25세 이하가 85%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재학 연령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성문제는 점차 심화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 성문제의 증가추세는 그들이 성 관련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보가 성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Lee, 1993).

Chang 등(1998)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율에 대한 개방형 자가보고 방식으로 응답한 조사결과를 보면, 성적 자유를 속성별로 분류하여 범주화시킨 내용의 우선순위는 책임지는 성관계, 의지대로 하는 성관계, 구속으로부터의 탈피, 즐기는 성관계,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free sex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자유는 책임, 의사결정, 구속이나 규범을 탈피하여 충동에 따라 즐기는 성 등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질 문제를 피하면서 감각 위주의 성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자율에 대한 우선순위는, 의지적 성관계, 책임지는 성관계, 자기통제, 강요되지 않는 것 등으로 나타나 자율의 개념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통제 하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가보고 된 자료에 나타난 성적 자유와 성적 자율의 공통점은 책임, 의지, 구속으로부터의 탈피였고, 차이점은 성적 자유는 충동성과 즐기는 성적 감각과 인간본성의 허용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성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평등한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성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성(性)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등에 관한 연구들로서 예방적 행위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 관련 지식, 태도, 행위수준 등의 요인들이 강하게 상호작용되어 행위결정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적(性的) 자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고 특성별 성적 자율성의 차이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일반적·성(性) 관련 특성에 따른 성적(性的)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성적(性的) 자율성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용어정의

- 성적(性的) 자율성 : 성적인 상황에서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나 충동에 적극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고 외부적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Mackenzie와 Stoljar, 2000; Wolf, 1990), 본 연구에서는 Chang(2002)이 개발한 13개 문항으로 측정한 값으로서 값이 클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일~1999년 12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전국의 7개 4년제 대학, 6개 전문대학 등 전국 10개의 도시에서 13개 대학의 재학생 2,530명을 통해 수집된 남·녀 대학생 1,865명(74.2%의 회수율)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15개 문항의 일반적·성(性) 관련 특성과 13개 문항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담당교수를 통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후, 대상으로부터 자가보고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 : Chang(2002)이 개발한 도구로서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강도에 따라 약한 수준부터 강한 수준으로 1점에서 5점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도구는 13문항, 5점 Likert scale로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性的)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도구의 하위 구성요소는 조절(10문항)과 대응(3문항)으

로 구분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0.86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hronbach's α 0.861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성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집단간의 성적 자율성 차이검정은 t-test, ANOVA를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를 이용하였다. 성적 자율성 도구의 각 문항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성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이 727명(39.0%), 여자대학생이 1,135명(60.9%)이었으며, 대상자의

<Table 1>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articipants (N=1,865)

Characteristics	Criteria	n (%)
Gender	Male	727(39.0)
	Female	1135(60.9)
Age	Mean \pm SD	21.15 \pm 2.33
Major	Medical track	673(36.1)
	Non-medical track	1188(63.7)
Year in university	1st	409(21.9)
	2nd	574(30.8)
	3rd	433(23.2)
	4th	446(23.9)
Sexual attitude of parents	Progressive	122(6.5)
	Conservative	1027(55.1)
	Ordinary	565(30.3)
	Vague	137(7.3)
Experience with sex education	Yes	1238(66.4)
	No	609(32.7)
Intercourse*	Yes	372(19.9)
	No	1358(72.8)
Experience with pregnancy prevention*	Yes	297(15.9)
	No	57(3.1)
Pregnancy*	Yes	26(1.4)
	No	149(8.0)
Experience with STD prevention*	Yes	193(10.3)
	No	137(7.3)

* Numbers excluded missing data

나이는 평균 21.15세였다. 전공은 의학계열이 673명(36.1%), 기타계열이 1,188명(63.7%)이었고,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 409명(21.9%), 2학년 574명(30.8%), 3학년 433명(23.2%), 4학년 446명(23.9%)이었다.

성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122명(6.5%), 보수적인 경우가 1,027명(55.1%), 보통인 경우가 565명(30.3%), 모르겠다 라고 답한 경우가 137명(7.3%)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과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38명(66.4%)이었다. 372명(19.9%)이 성교경험이 있었으며, 성교경험이 있는 이들 중 임신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297명(15.9%)이었고, 임신예방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57명(3.1%)이었다. 또한 이들 중 149명(8.0%)은 임신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며,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26명(1.4%)이었다. 성병예방을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193명(10.3%)이고, 137명(7.3%)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다고 답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성적(性的) 자율성 정도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전체점수와 문항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능점수의 총점 범위 13~65점 중에서 총점은 55.24점이었고, 성적 자율성의 하위속성인 조절영역의 평균평점은 4.23점, 대응영역의 평균평점은 4.30점으로 두 개의 영역이 유사하였으나 대응영역이 약간 높았다.

문항별로 볼 때에 13개의 문항 중 우선순위를 보면,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쓸 것이다'가 4.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1,375명(73.7%)이 5점에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다(4.48점)', '나는 원치 않는 성교요구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것이다(4.34점)', '나는 이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것이다(4.30점)', '나는 성적욕구 해결 시 상대방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4.30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성관계를 원할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3.86점)'이었으며, 727명(39.0%)이 5점에 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적(性的) 자율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일반적·성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점수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1$ 으로 설정하였다. 성적 자율성

<Table 2> Distribution and mean scores on items of sexual autonomy

(N=1,865)

item		1	2	3	4	5	Mean±SD
		n(%)	n(%)	n(%)	n(%)	n(%)	
C O N T R O L	I can speak equally with my sex partner about sex related matter.	18(1.0)	49(2.6)	267(14.3)	553(29.7)	973(52.2)	4.30±0.88
	I can speak clearly about having intercourse.	87(4.7)	170(9.1)	384(20.6)	488(26.2)	727(39.0)	3.86±1.17
	I can reject having unwanted intercourse	37(2.0)	88(4.7)	177(9.5)	457(24.5)	1100(59.0)	4.34±0.97
	I can decide by myself whether I have intercourse or not	48(2.6)	67(3.6)	270(14.5)	499(26.8)	974(52.2)	4.23±1.00
	I can use contraceptives when I have intercourse	60(3.2)	68(3.6)	240(12.9)	404(21.7)	1078(57.8)	4.28±1.04
	I can use prevention methods to prevention STDs	46(2.5)	85(4.6)	284(15.2)	417(22.4)	1022(54.8)	4.23±1.03
	I will control my sexual desire	35(1.9)	56(3.0)	304(16.3)	564(30.2)	897(48.1)	4.20±0.95
	I care about the effects of my sexual partner when I have intercourse	28(1.5)	51(2.7)	205(11.0)	623(33.4)	948(50.8)	4.30±0.88
	I can express my unpleasant feeling against sexual violence.	34(1.8)	98(5.3)	378(20.3)	523(28.0)	825(44.2)	4.08±1.01
	I can prevent of sexual violence	23(1.2)	38(2.0)	156(8.4)	452(24.2)	1186(63.6)	4.48±0.83
Mean±SD							4.23± .92
C O P I N G	I can decide to have an abortion or giving birth following pregnancy out of wedlock	55(2.9)	71(3.8)	219(11.7)	511(27.4)	997(53.5)	4.25±1.01
	I can be responsible if I have an STD infection	56(3.0)	127(6.8)	344(18.4)	530(28.4)	800(42.9)	4.02±1.08
	I can prevent repeated STD infections	18(1.0)	30(1.6)	91(4.9)	342(18.3)	1375(73.7)	4.63±0.74
	Mean±SD						4.30± .89
Total		Mean±SD					55.24±7.72

이 남자대학생은 53.91점, 여자대학생은 56.13점으로서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5.822$, $p=.000$).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53.46점, 2학년은 55.11점, 3학년은 55.86점, 4학년은 56.51점으로 나타나 Scheffe's test를 한

결과, 1학년 집단의 성적 자율성 정도가 2, 3, 4학년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F=12.389$, $0=.000$). 부모님의 성태도가 보수적인 집단은 55.67점, 모르겠다는 집단은 53.29점으로 부모님의 성태도가 모호한 집단의 성적 자율성 정도가 통계

<Table 3> Mean scores for sexual autonomy according to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N=1,865)

Characteristics	Criteria	n (%)	Mean \pm SD	t / F (p)
Gender	Male	727(39.0)	53.91 \pm 8.56	-5.822(.000)
	Female	1135(60.9)	56.13 \pm 6.90	
Major	Medical track	673(36.1)	55.09 \pm 8.19	-0.693(.489)
	Non-medical track	1188(63.7)	55.35 \pm 7.35	
Year in university	1st	409(21.9)	53.46 \pm 9.16 ^①	12.389(.000) ^{† 1)}
	2nd	574(30.8)	55.11 \pm 7.51 ^②	
	3rd	433(23.2)	55.86 \pm 7.53 ^③	
	4th	446(23.9)	56.51 \pm 6.05 ^④	
Sexual attitudes of parents	Progressive	122(6.5)	54.76 \pm 8.45	4.223(.006) ^{† 2)}
	Conservative	1027(55.1)	55.67 \pm 7.17 ^①	
	Ordinary	565(30.3)	55.03 \pm 7.97	
	Vague	137(7.3)	53.29 \pm 9.40 ^②	
Experience with sex education	Yes	1238(66.4)	55.42 \pm 7.39	-1.041(.298)
	No	609(32.7)	55.03 \pm 8.11	
Intercourse*	Yes	372(19.9)	55.10 \pm 7.68	0.548(.584)
	No	1358(72.8)	55.35 \pm 7.61	
Experience with pregnancy prevention*	Yes	297(15.9)	55.74 \pm 7.24	3.317(.001)
	No	57(3.1)	51.20 \pm 9.65	
Pregenacy*	Yes	26(1.4)	54.95 \pm 6.73	-4.730(.637)
	No	149(8.0)	53.97 \pm 9.05	
Experience with STD prevention*	Yes	193(10.3)	56.19 \pm 7.51	3.194(.002)
	No	137(7.3)	53.55 \pm 7.07	

*Numbers excluded missing data

† Scheffe's test : 1)②,③,④>① 2)①>②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F=4.223$, $p=.006$). 성교경험자 중 임신 예방조치 경험이 있는 집단은 55.74점으로서 예방조치 경험이 없는 집단(51.20점)보다 성적 자율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3.317$, $p=.001$). 또한 성병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경험이 있는 집단은 56.19점으로 예방조치 경험이 없는 집단(53.55점)보다 성적 자율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3.194$, $p=.002$). 그러나 의학계열대 비 의학계열, 과거 성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성교경험 유무, 성교 경험자 중 임신경험 여부에 따른 성적 자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확대해서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Table 3>.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총점은 가능 점수의 범위 13~65점 중에 55.24점이고, 문항별 평균은 가능 점수의 범위 1~5점 중에 조절은 4.23점, 대응은 4.30점으로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성별은 남학생이며 학년별로는 신입생이었다. 부모의 성태도가 모호하거나 임신예방이나 성병예방 경험이 없는 군들이 성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약된다.

논 의

성적 자유(性的自由)와 성적 자율(性的自律)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자유와 자율의 개념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유와 자율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에서는, 자유(自由)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는데, 법학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철학에서는 '소극적으로는 외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써 쓰인다.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1996)에서는 자율(自律)이란 남으로부터 지배, 조력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세운 규율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바르게 규제하는 도덕적으로 독자적인 상태이며,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는 성질을 자율성(自律性)이라고 한다. Huh(1995)는 자율성 개념을 간섭의 부재, 능력, 이상적 인격, 보편적 이성, 독립적 절차, 그리고 사회화된 자아로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조화로운 관계와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란 자연법칙을 인식하고, 이 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 가는 현상으로 설명되

만, 대부분 자유는 억압된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쓰여진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서 나타난 바에 따라 비추어 본 연구에서 문항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13개의 문항 중 제 2요인 '대응'에 속하는 문항인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을 것이다(4.63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제 1요인 '조절'에 속하는 문항인 '나는 성관계를 원할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3.86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항별 응답분포의 특성은 문제 예방차원, 특히 성병, 성폭력 등의 물리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높은 편이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대부분의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은 물리적인 문제예방에 치우친 결과를 보였다고 요약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1,865명의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군이 남자 대학생군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성적 자율성이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행위능력의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개념이 남성 중심적이며 성기 중심적인 점(Chang과 Cho, 1992)과 성행위의 결과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도와, 부모들의 보수적인 성태도군이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킬 때 부모들이 딸들에게 보다 보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문화적인 반응일 수 있으며(Popper와 Brown, 1986), 이는 사실상 Chang 등(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대생의 혼전 성교수용성이 50.7%인데 비하여 남학생의 혼전 성교수용성이 87.4%로 나타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의 자기 보호적 능력이 높은 것과 보수적인 성태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Yesmont(1992)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높은 군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비한 후 성관계 하기, 성상대자의 성병에 대해 질문하기, 콘돔 사용 등에 대해 남녀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Lee(2001)와 Park, Kim과 Park(1998)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보다 고정적인 성 역할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의학계열을 전공하는 경우에 타과에 비해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과 대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에 대한 지식이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나 신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성적 자율성은 성 지식 이외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해석이나 판단, 의사결정 등의 행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임을 암시한다. 성적 자율성은 이미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습득된 성 지식이나 행동능력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Lee 등, 1997) 의학계열의 교과를 통해 습득된 지식으로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님을 유추케 한다.

신입생이 고학년에 비하여 성적 자율성의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고학년의 남학생 경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가지 않은 사람보다 성병감염 경험이 많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Lee 등, 1997; Lim 등, 1994), 고학년에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성적으로 노출된 결과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정도의 차이와 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모님의 성태도가 보수적인 경우에 성적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보호할 것과 혼전성교를 피하도록 하는 부모들의 보호적 행동기준이 자녀들에게 수용된 결과로 보인다.

성교육 경험에 있어서 과거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여부가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은 기존의 성교육이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유도하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성교육이 초, 중, 고교 시절의 교육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된 후로 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연구결과(Lee 등, 1997; Lee, 1994)를 고려할 때에 생식관련 사실적인 지식전달이나 태도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스스로의 성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성적자율성 획득을 위한 행동능력 획득을 지향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대학생의 성건강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전체 남자대학생의 68~78%와 전체 여자대학생의 38~47%가 혼전 성관계에 수용적인 태도(Nam, 1999; Chang 등, 1998)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이전에 원하지 않은 성교나 원치 않는 임신, 강간, 혹은 성병을 경험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의 대다수는 잠재적으로 성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Han과 Ham, 2000; Nam, 1999; Chang 등, 1998; Lim 등, 1994). 이러한 대학생 성문제의 증가추세는 그들이 성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Kim, 1999), 그러한 정보가 성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교 경험여부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임신예방 경험이나 성병예방 경험은 성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경험적 학습이 성적 자율성 향상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이 과거의 성교 경험연령, 성교상황, 원치 않는 상황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 성교 경험시기 또한 파악되지 않아 Han과 Ham(2000)이 1,049명 중 19.4%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교를 하게되고, 38.4%가 후회스러웠다고 한 보고 등을 고려할 때 과거의 성교 경험은 자의적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며, 현재의 성적 자율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들 중 성교 시 임신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55.74점) 성병예방을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경우(56.19점)에 성적 자율성이 더 높았다. 이는 자율성이란 자신의 외부 조건이나 내부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므로 자율성이 획득되면 피임기구나 용품, 약제들을 사용하는 감각적 실습이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느낌, 언어, 행동 등을 표현하는 경험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일~1999년 12월 6일 동안에 전국 13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1,86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5개의 일반적·성 관련 특성과 13개 문항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성적 자율성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611이었다.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문항별 점수의 우선 순위는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을 것이다(4.63점)',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다(4.48점)', '나는 원치 않는 성교요구 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것이다(4.34점)', '나는 이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것이다(4.30점)', '나는 성적욕구 해결시 상대방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4.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성관계를 원할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3.86점)'이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정도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t = -5.822, p = .000$), 2, 3, 4학년이 1학년보다 성적 자율성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12.389, p = .000$). 그러나 전공에 따른 의학계열(55.09점), 기타계열(55.35점)간의 성적 자율성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성태도가 보수적인 군이 모호한 태도의 부모군보다($t = 4.223, p = .006$), 성교 경험자 중 임신예방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t = 3.317, p = .001$), 성병예방 경험군이 성병예방 경험 없는 군보다($t = 3.194, p = .002$)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교육 경험 유무, 성교경험 유무, 성교 경험자 중 임신경험 유무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정도는 차이

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경험적 성교육은 남학생 집단, 신입생 집단, 부모의 성태도가 모호한 집단, 성병예방 경험이나 임신예방 경험이 없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차별화 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제한점 : 본 연구는 성적 자율성을 그들의 의지수준에서 측정하였고, 구체적인 행위수준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성적 자율성에 영향 주는 요인들을 밝힐 것을 제언한다.
-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References

- Chang, S. B. (2000). Sexual culture and contemporary youth in Korea. *J Asian Sexology*, 2, 13-133.
- Asian Federation for Sexology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8(1), 106-115.
- Chang, S. B., Lee, Y. J., Park, S. J., Song, U. I., Suh, J. D., & Oh, U. K. (1998).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Institute for Sexual Culture*, 42-55.
- Chang, P. W., & Cho, H. (1992). Sexual culture of Korean-focused to male, *Women's Studies* 8, 127-174.
- Han, K. S., & Ham, M. Y. (2000). A survey on sex 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15-131.
- Huh, R. K. (1995). Discussion of feminist autonomy. *Korean Women's Studies*, 1(1), 7-26.
- Kim, J. E. (1999). Content Analysis of Sex Education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5(2), 232-249.
- Kim, K. S. (2002). *Sexuality and Health*. Seoul : HyunMunSa.
- Lee, M. H. (1993).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eoul : YMCA Adolescent Counseling Center.
- Lee, S. B. (2001). *Sex Educator and Counsellor Training proceedings, IV :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culture of Korean*.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 Lee, Y. H., Park, M. R., Song, M. S., Yoo, J. H., Choi, S. N., Han, Y. M., & Whang, Y. J. (1997).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26-35.
- Lee, I. S. (1994). *A survey on sex related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 and need of sex education*.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im, J. K., Kim, H. R., Jang, D. K., Kim, J. H., & Kim, H. K. (1994).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wed Male in Korea*. Seoul : Korean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Mackenzie, C., & Stoljar, N.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11th ed.). (1996). Springfield, MA : Merriam-Webster.
- Nam, M. H. (1999). A survey on sex 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emy of Community Nursing*, 19(1), 239-251.
- Park, Y. S., Kim, Y. I., & Park, Y. H. (1998). Comparative Study on Sex Identity and Stereotype on Gender Role. *J Korean School Health*, 11(1), 51-63.
- Popper, S., & Brown, R. A. (1986). Moral reasoning, parental sex attitudes, and sex guilt in female college students. *Aechives of Sexual Behavior*, 15(4), 331-340.
- Werner-Wilson, R. J. (1998).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dolescence*, 33(131), 519-31.
- Wolf, S. (1990). *Freedom within Reas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Yesmont, G. A. (1992). The relationship of assertiveness to college students' safer sex behavior. *Adolescence*, 27(106), 253-272.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Chang, Soon-Bok¹⁾ · Lee, Mi-Kyeong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ome Health Hospice Care

2) Instructor, Dankoo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add to the understanding of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865 college students from 13 colleg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5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13 items measuring sexual

autonomy. The SPSS 10.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 The global score for sexual autonomy was relatively high at 55.24 with a possible range of 13~65. The item on sexual autonomy with the highest score were, 'I can prevent repeated STD infections' and the item with the lowest sexual autonomy score was 'I can speak clearly about having intercourse'. Factors related to sexual autonomy were identified as gender, parents' attitude, year in university, experience with STD prevention and experience with pregnancy prevention. The score for sexual autonomy was lower in male college students ($p=.000$), students whose parents' attitudes to sex were vague, first year students ($p=.000$), students who had little experience with prevention of STDs ($p=.002$), students who had little experience with prevention of pregnancy ($p=.001$).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setting priorities for sex education the following groups of students should be given first priority, male students, students whose parents' attitudes to sex were vague, first year students, students who have not had experience with prevention of STDs, and students who have not had experience with prevention of pregnancy.

Key words : Sexual autonomy, College stud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i-Kyeong
99-13, Nonhyun-Dong, Gangnam-Gu, Seoul 135-819, Korea
Tel: +82-2-545-0585 Email: maternity99@hanmail.net